

장갑의 상징적 의미에 의한 디자인 개발

이지선* · 최현숙

국제대학 패션계열 스타일리스트 전공 겸임교수*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교수

요약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이 점차 다양화·개성화됨에 따라, 장갑은 패션 코디네이션을 위한 액세서리 아이템의 위치에서 상승하여 복식의 일부로 신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토털 패션의 의미가 강조되는 현대에 장갑은 패션의 부수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중요한 아이템이 되었으며, 동시에 인간의 미의식 표현의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심의 고조와 함께 패션 트렌드의 변화에 있어서도 그 위치가 확고해졌다. 본 연구는 서양 장갑의 발달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다양한 종류의 장갑을 통하여 인간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이를 기초로 실제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장갑 디자인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작품제작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론적 연구의 결과 장갑의 상징적 의미는 장식성, 에로티시즘, 유희성, 신체확장성으로 구분되었다. 분석된 각각의 상징적 의미에 의거하여 연구자의 창의적 장갑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고 4점의 작품을 실제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복식연구에 있어 의상에만 치중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장갑까지를 포함하는 확대된 시각을 제시하였으며 전문적인 장갑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을 이론과 작품을 통해 밝힐 수 있다는 데 있다.

주제어: 장갑, 상징적 의미, 조형성, 토털 패션

I. 서론

과거의 장갑은 손을 보호하거나 추위로부터 보온하는 실용적인 목적과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패션에서 토탈 패션의 의미가 강조되면서 장갑은 패션에서 액세서리라는 부수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인간의 미의식을 표현하는 아이টে็ม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이미지의 디자인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갑산업은 제조업체 위주의 획일화된 상품생산에 국한되어 있다. 전문 디자이너의 참여 저조로 다양한 디자인이 부족한 실정여서 장갑 디자인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장갑에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손 형태의 특징 및 장갑의 치수 설정에 관한 권명숙(2005)¹⁾의 연구와 최혜선(2004)²⁾의 장갑의 치수 규격 실태에 관한 연구, 김소영(2008)³⁾의 2~3차원 데이터를 활용한 장갑형 햅틱용 기본 패턴 개발 등 장갑 패턴 개발에 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장갑의 조형성에 대한 연구로는 오지은(2001)⁴⁾의 17, 18세기 장갑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다른 액세서리인 모자, 핸드백, 구두, 양말, 단추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진 것에 비하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장갑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장갑의 조형성을 분석함으로써 장갑을 통해 표출하고자 했던 상징적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장갑 디자인에 새로운 인스피레이션(inspiration)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서양 장갑의 발달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장갑의 조형적 특징을 분석한다. 셋째, 다양한 종류의 장갑을 통해 인간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상징적 의미를 규명하여, 이를 기초로 실제 작품을 디자인 제작함으로써 장갑 디자인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복식연구에 있어 의상에만 치중하는 시각

에서 벗어나 장갑까지를 포함하는 확대된 시각을 제시하였으며, 전문적인 장갑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을 이론과 작품을 통해 밝힐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작품제작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장갑의 조형성 및 상징성에 대한 연구는 단행본, 학위논문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문헌 연구와 인터넷, 전시 도록, 컬렉션 등에서 발췌된 사진 자료 분석을 통한 사례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개발로 실제 작품제작이 이루어졌다. 연구의 범위는 유럽을 중심으로 하였고 시대적 범위는 이집트부터 20세기까지이며, 현대 패션에서 장갑의 상징적 의미 분석은 토탈 패션이 강조된 1980년을 기준으로 2012년까지 최근 32년간의 패션 컬렉션에 발표된 여성컬렉션 장갑을 대상으로 『Collezioni』, 『Collection』 등의 패션관련 잡지와 스타일닷컴을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 관련 서적 등의 정보를 참고하였다. 장갑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패션디자인 및 미학관련 전문가 등의 집단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장갑의 사적고찰

장갑은 원래 추위를 막거나 일을 할 때 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 것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예의를 갖춘 하나의 액세서리로 등장하게 되었다.⁵⁾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장갑은 B.C. 1361~1352년 고대 이집트 투탕카멘(Tutankamen) 왕의 무덤에서 발견한 장갑이다.⁶⁾ 손목에 끈이 달린 증길이의 다섯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색실로 장식된 아마천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장갑은 방한이나 보호를 위해 착용되었으나, 그리스인

과 로마인들은 방한을 위해 장갑을 끼는 것은 사내답지 못한 버릇이라고 여겨 장갑을 보호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중세 시대의 장갑은 권력이나 위엄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들의 계급을 결정하는 도구였다. 그래서 왕과 주교는 손가락장갑을 사용하였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병어리장갑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7세기 무렵 장갑은 대부분 종교적 용도나 왕후, 귀족 등 상류층의 장신구로 사용되었다. 특히 왕의 장갑은 주교들의 장갑과 함께 발전했는데, 헨리 6세 이래로 왕의 장갑은 금으로 된 양각과 보석으로 풍부하게 장식되었다<그림 1>. 10세기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장갑을 착용하였다. 장갑에 있는 장신구는 각자의 위엄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사용되었으며 신분에 따라 사용하는 장신구의 분량 또한 달랐다. 중세 후기 귀족들의 장갑은 귀족 취향에 맞게 아주 고급스럽고 화려해졌으며, 이에 일반 평민들도 귀족의 장갑을 모방한 화려한 장갑을 착용하였다.⁸⁾ 중세의 장갑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 외에도 토지를 수여하는 의식이나 성직자들에게 높은 지위를 수여할 때에도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다. 14세기까지는 주로 상류계급의 남성들이 장갑을 사용했으나, 15세기말 프랑스 앙리2세의 왕비였던 카트린 드 메디시스(Catherine de Medicis)에 의해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장갑 사용을 유행시켰다.

르네상스 시대의 장갑은 남자, 여자 모두에게 유행의 필수품이 되었으며, 특히 여성용 장갑이 크게 유행하였다. 르네상스 초에는 손목부분이 접히는 다소 짧은 형태의 곤틀릿(gauntlet)이 유행하였고, 중기에는 꽃잎 테 장식으로 마무리된 장갑이 애용되었다. 이 시대에는 장갑을 손에 직접 착용하지 않고 손에 들거나 벨트에 끼고 걷는 것이 유행이었다<그림 2>.⁹⁾ 16세기의 장갑은 권리나 자격의 상징이었다. 마상시합대회에서 도전한다는 행위의 한 형태로 장갑을 주었다. 그것은 공정한

경기규칙에 따라서 그들이 가진 무기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였다. 바로크 시대의 장갑은 중요한 액세서리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착용되었으며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장식용 장갑은 실크에 보석자수나 리본 등으로 장식을 한 값비싼 것으로 항상 향수를 뿌렸다. 당시의 장갑은 법적인 계약이나 땅을 빌려주거나 일에 대한 보상 또는 호의를 받아들이도록 탄원하는 것으로 상징되었다.¹⁰⁾ 17세기부터 금실과 은실로 일부분이 장식된 실크 편물 장갑이 선보였으며, 이 장갑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귀한 선물로 여겼다. 장갑의 커프스를 꽃잎모양으로 스킨(scallop)하거나 프링징(fringing)장식이나 보석과 자수, 리본, 털 등으로 장식하였다. 그러나 17세기 말엽에 이르자 장갑의 외양은 점차 단순해졌으며, 여성들은 손등부분이 레이스로 되어 있거나 손목부분이 짧고 직선형의 장갑을 착용하였다<그림 3>, <그림 4>. 18세기 장갑이 17세기와 달리 화려하지 않고 단순화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여성에게 있어서 장갑은 그 이전 시대와 같이 여전히 중요한 액세서리였지만, 남성에게 있어서는 사냥할 때를 제외고는 이전보다 적게 착용되었다. 당시 여성들에게 있어 구리 빛으로 탄 피부는 일하는 계층을 나타내므로 계급 표시의 도구로 장갑을 착용하였다. 의복의 소매가 짧아지면서 장갑의 길이가 길어졌고 미튼(mitten)이 유행하였다. 상류층의 여성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장갑을 바꾸었는데, 황후 조세핀은 한번 사용한 장갑은 다시 사용하지 않았으며 일 년에 가죽뿐만 아니라 실크로 된 장갑을 천 켄레 이상을 사용했다. 19세기 엠포이어스타일 시대(Empire style: 1789-1815)의 여성의 장갑은 엠포이어스타일의 드레스의 영향으로 팔꿈치까지 오는 긴 장갑을 끼는 것이 유행하였다. 19세기 초 여성 의상에 있어 장갑은 보통 구두와 맞추어 끼었는데, 평상복에는 팔꿈치 혹은 그보다 더 긴 기장이었고, 이브닝 웨어에는 더 길게 어깨까지 올라오는 것을



<그림 1> 프레드릭 2세 장갑
(출처: 「17, 18세기 장갑에 관한 연구」, 2001, p.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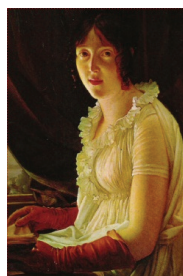
<그림 2> 장갑을 들고 있는 엘리자베스 1세
(출처: 「2000 years of fashion」, 1987, p.250)



<그림 3> 1641년 장갑
(출처: 「2000 years of fashion」, 1987, p.275)



<그림 4> 1650년대 장갑
(출처: 「2000 years of fashion」, 1987, p.281)



<그림 5> 1811년 장갑
(출처: 「서양패션 멀티 콘텐츠」, 2010, p.343)



<그림 6> 에르메스 장갑
(출처: 「2000 years of fashion」, 1987, p.419)

끼었다<그림 5>. 19세기 동안 장갑은 음식을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실내와 실외에서 항상 착용했다. 로맨틱 스타일(Romantic style: 1815~1870) 시대에는 1834년 프랑스 그르노블(Grenoble)의 자비에르 쥬뱅(Xavier Jouvin)이 장갑기계를 발명하여 표준적인 형태와 크기의 장갑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1860년 초까지 짧은 기장이 유행하였고 1860년 중반부터 길이가 길어져 8~10버튼¹¹⁾의 긴 키드(kid)장갑이 유행하였다. 아르누보 스타일(Art Nouveau Style: 1890~1914) 시대에는 장갑의 길이가 팔꿈치 위로 올라왔고 팔꿈치 보다 더 긴 기장으로 팔 전체를 다 가릴 정도의 20버튼의 암렉스(arm length)를 착용하게 되었다.

20세기에는 합성섬유의 발달로 인해 나일론이나 레이온 장갑이 보급되었으며, 남녀장갑 모두 실용화되었다. 1920년대는 스웨이드나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장갑이 애용되었고 1925년경부터 소매길이와 상관없이 짧은 장갑을 사용하였다. 1930년대의 여성패션에서 장갑은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¹²⁾ 장갑의 색상이 화려해지고 손목 길이의 곤틀릿과 팔꿈치 길이의 스웨이드 소재나 부드러운 가죽장갑을 착용하였다.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장갑의 중요성이 다른 시기에 비해 줄어들었다가 장갑은 1950년에 다시 필수적인 액세서리가 되었다. 에르메스(Hermes)나 몰리뉴(Molyneux)와 같은 패션 하우스에서 장갑 디자인을 하게 되었고<그림 6> 엘자 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relli)는 컬렉션에서 장갑을 선보였다. 50년대 말부터 장갑은 점차 실용성적인 면이 강조되어 패션 아이템보다는 추위로부터 보호를 위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으나, 1965년 앙드레 쿠레쥬(Andre Courreges)는 자신의 컬렉션에서 하얀 앙상

블과 색상 톤과 같은 짧은 장갑을 디자인하였다. 그 후 대량생산으로 수공예 가죽 대신 합성 가죽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겨울용 장갑은 모 편물이나 안감을 넣은 가죽장갑을 사용하기도 했다. 1970년대 이후 생활양식이 캐주얼화 되어가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갑의 착용은 많이 줄어들었다. 1980년대 다양화로 인해 패션에서 액세서리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모자, 가방 등의 단독컬렉션이 시작되었다.¹³⁾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장갑도 다양한 이미지의 디자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단순성과 기능성을 추구하던 경향의 반동으로 20세기 말에는 개인의 기호와 취미의 차별화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부터 장갑은 액세서리임을 거부하고 의복의 하나로 다양한 이미지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2. 장갑의 구조와 종류

1) 장갑의 구조

장갑은 보통 손등과 손바닥이 하나로 이루어진 핸드(hand), 1지(thumb), 손가락 측면을 형성하는 얇은 조각인 포셰트(fourchettes)로 이루어져 있다. 장갑의 구성은 모양과 종류에 따라 구성법이 다르다.¹⁴⁾ 엄지에 따라 볼튼 텀(bolton thumb), 퀵 텀(quirk thumb), 셋인 텀(set-in thumb)로 나뉘는데 볼튼 텀은 1지 장갑의 핸드(hand) 부분에서 분리된 형태이고, 퀵 텀은 프렌치 텀(french thumb)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셋인 텀과 같은 방법으로 봉제하지만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을 위해 삼각형 모양의 조각을 1지와 2지 사이에 넣어준 형태이다. 셋인 텀은 엄지손가락이 한 조각으로 잘려져 있으며 핸드부분과 붙어있는 것이다.

2) 장갑의 종류

장갑은 형태에 따라 글러브(glove), 곤틀릿(gauntlet), 미튼(mitten), 하프 미트(half mitt), 슬립온(slip-on),

쇼티(shotic), 암랭스(arm length, mousquetaire)로 구분된다. 글러브는 다섯 손가락을 따로 끼는 것을 말한다. 길이에 따라 명칭이 다른데 손목까지 오는 짧은 것부터 팔 전체를 감싸는 긴 것도 있다. 곤틀릿은 손목부분이 떨어져 있는 장갑의 총칭으로 중세 기사들의 긴 장갑에서 유래되었다.¹⁵⁾ 미튼은 엄지손가락을 넣는 부분과 다른 네 개의 손가락을 넣는 부분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 장갑으로 운동용으로 많이 쓰인다. 편물로 짜여진 것이 많고 병어리 장갑이라고도 한다. 하프 미트는 손가락 끝부분을 잘라낸 즉 손가락 관절까지만 있는 장갑을 말한다. 운전하기 쉽도록 디자인된 드라이버스 글러브(drivers glove)가 대표적인 예이다. 슬립온은 손에 끼는 것으로 손목 부분에 전혀 장식 없이 끼는 장갑을 말한다. 쇼티는 보통 손목까지 오는 길이를 가진 장갑의 총칭으로 슬립온형이나 단추 하나로 여미게 되어 있다. 암랭스는 17, 18세기 프랑스 황실 근위 대원들이 착용했던 장갑에서 유래되었으며, 각테일 파티나 이브닝용의 장갑으로 팔꿈치 위까지 오는 길이의 장갑을 말한다.

III. 장갑의 조형적 특성

1. 형태

장갑의 형태는 장갑의 종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구석기 시대 인류가 방한을 목적으로 손가락이 없는 단순한 주머니 모양의 긴 장갑을 사용하였다고 한다.¹⁶⁾ 그리스, 로마인들이 각종 생활분야에서 장갑을 사용하였지만, 그 형태는 현대 장갑의 모양이 아니라 미튼과 비슷한 것으로 엄지손가락만 분리되어 있는 싸개로 되어있었다.¹⁷⁾ 10세기에도 엄지손가락만 분리된 미튼을 착용하였고, 12세기에 이르러서 손가락이 분리된 글러브가 등장하였다. 14세기에는 장갑

의 형태로 사용자의 신분을 알 수 있었다.¹⁸⁾ 왕과 주교와 같이 높은 계급의 사람들만 글러브를 착용할 수 있고 농부와 같은 일반 평민들은 두 개의 손가락과 엄지로 구성되어 있는 장갑을 착용하였다. 14세기 후반에는 장갑 부리의 끝단이 팔 아래 부분의 반 정도를 덮는 형태로 주름이 잡혀있거나 술 장식으로 마무리 되어있었다. 16세기에는 짧은 형태의 손목부분이 접히는 곤틀릿을 착용하였다. 17세기 초에는 곤틀릿이 후반에는 팔꿈치 길이의 장갑이 나타나면서 장갑의 외양은 점차 단순해졌다. 18세기에 이르러서 여성장갑은 길이에 있어서 심한 변화가 있었는데, 초에는 짧은 길이의 곤틀릿이 유행하였고 점차 장갑의 길이가 길어졌다. 여성에게 있어서 장갑은 여전히 필수 아이템으로 사용되었으나 남성은 사냥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전보다 적게 장갑을 착용하였다. 19세기 여성의 짧은 퍼프소매의 영향으로 팔꿈치 길이의 긴 장갑과 미트가 유행하였다. 8~10버튼, 20버튼의 팔꿈치보다 긴 기장의 암렐스를 착용하였다. 남성은 일반적으로 짧은 길이의 장갑을 사용하였다. 1925년 경부터 사람들은 소매 길이와 상관없이 짧은 장갑을 사용하였다. 20세기에는 용도에 맞는 다양한 기장과 형태의 장갑을 착용하였다. 짧은 길이의 슬립온, 곤틀릿, 팔꿈치 길이의 암렐스 등 다양한 디자인이 선보였다.

2. 색채

색채는 색에 의한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것으로 계급의 구분과 계층, 직업까지 알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장갑의 색상은 합성염료가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소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중세에는 하류층은 명도나 채도가 낮은 올리브 그린, 회색 등 더러움이 잘 드러나지 않는 색상을 사용하였고 노동과 상관없는 상류층은 명도와 채도가 높은 주황, 적

색, 자주색 등이 사용되었다. 금색은 왕족과 성직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16세기는 크림, 분홍, 적색의 장갑이나 버프(buff)색이 주를 이루었고, 17세기에는 크림색, 페일 블루, 분홍, 연두, 황갈색 등의 자연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18세기에는 진주색, 회색, 분홍, 노랑, 파랑, 녹색등의 옅은 색조를 띄고 있었으며¹⁹⁾, 의상색과 동일한 색 혹은 반대색으로 매치하였다. 19세기 장갑은 신발이나 의상의 색깔과 같은 색으로 착용하였으며, 19세기 말에 합성염료의 발명으로 다양한 색상의 장갑이 등장하게 되었다. 20세기에는 염색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색상의 장갑이 착용되었고 가죽 장갑에 직접 프린트하거나 여러 색상의 자카드로 무늬를 만들거나 여러 색 실들이 혼합되어 다양한 색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3. 소재

인류 초기에 가죽 등의 자연 그대로를 사용하였으며 그 외 린넨 등이 함께 사용되었다. 중세에는 장갑의 재료로 새끼염소가죽, 양가죽, 사슴가죽 등이 사용되다 십자군 전쟁으로 많은 외래문화가 교류되면서 후반에는 가죽 외에 다양한 직물의 유입으로 실크, 벨벳, 면 등이 사용되었다. 16세기에는 주로 새틴과 벨벳, 견사의 편물을 사용하였다. 당시 장갑이 사치 품목에 해당하는 8가지 복식금지 품목의 하나여서 일반인들에게 규제되었다. 17세기에는 견에 수를 놓은 것, 견사로 짠 것, 양가죽, 송아지가죽, 사슴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자연 그대로의 버프가죽, 햇빛에 의해 무드질 된 스웨이드를 사용하였다. 18세기 장갑의 소재는 다양한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보통은 자연 그대로의 버프가죽이나 스웨이드가 주를 이루었다.²⁰⁾ 19세기에는 키드스킨(kidskin)과 같은 가죽 소재, 다양한 식물 소재, 실크 편물 소재를 사용하였다. 20세기는 가죽뿐만 아니라 무개, 텍스처와 색상이 다양한 면 편성물과 나일론 등이 이용되었다.

인조·합성섬유의 발달로 나일론, 레이온의 생산으로 형태가 좋은 저지로 된 장갑이나 사교용으로 직조한 문양이 있는 그물로 된 장갑이 생산되었다. 대량 생산으로 가죽 대신 합성 피혁으로 된 장갑이 제작되었다.

4. 장식

장식은 일상적인 사용품을 목적에 합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형태화해서 대상을 매력적으로 하거나 아름답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²¹⁾ 고대에는 장식이 발달되지 않아 보온을 목적으로 장갑 안감에 털을 넣었으며 장갑 가장자리에 끈 장식을 하기도 하였다. 중세 장갑은 신분에 따라 사용하는 장신구의 분량이 달라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장갑을 사용했다. 장갑의 등 부분은 금색이나 은색, 혹은 에나멜 색깔을 칠한 둥근 원의 나이트 모양이나 원형의 양각이 수놓아졌다. 나이트 모양이나 원형의 양각

은 그리스도나 거룩한 십자가, 양, 하나님의 축복하는 손 모양의 그림으로 되어있는 장갑을 착용하였다. 16세기에는 장갑의 커프스가 자수로 장식되어 있으며 가장자리 끝에 술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 시기의 장갑은 여러 가지 색상의 자수와 금색 술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17세기의 장갑은 곱슬 곱슬하게 끈 술과 금, 은색의 레이스, 진주, 스펅글로 장식되어 있으며, 실크 리본의 밴드 장식이나 넓은 끈, 술 장식으로 되어있다. 18세기에는 주름 장식, 장미매듭, 그리고 파퓌르(faveurs)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색의 실크 장식의 리본들이 손목 부분에 장식되었다.²²⁾ 꽃과 나뭇잎 등의 자연적인 소재를 디테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19세기의 장갑에는 리본이나 깃털, 자수, 프린팅 장식이 되어있었다. 20세기에는 단추, 버클, 스트라이프, 자수, 장식 상침 등으로 그 이전보다는 단순한 장식을 하였으며 손목부분에 트리밍을 넣기도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시대별 장갑의 조형성 분석

	형 태	색 채	소 재	장 식
고대	긴 주머니 모양 손싸개	린넨이나 가죽 색상	린넨이나 가죽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소재	끈 장식, 털
중세	10세기: 엄지손가락만 분리된 미튼 12세기: 글러브 계급에 따라 형태 다름	흰색, 적색, 금색	린넨, 가죽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소재	금, 은색 자수 진주, 보석, 술장식
근세	16세기: 커프스가 접히는 짧은 곤들룻 17세기: 초기에는 곤들룻을 착용하고 후기에는 팔꿈치 길이의 미튼	크림색, 핑크, 황갈색 등 가죽컬러 그대로 사용	키드스킨 도스킨 실크, 벨벳 면, 린넨 울니트	루프, 자수, 술, 주름장식, 레이스, 리본밴드, 장미 매듭
근대	암렝스 글러브 미튼 20버튼의 암렝스	정장에는 흰색 혼례용으로는 라벤더 테이터임에는 빛깔이 있는 것으로 의상과 구두의 색상과 동일색	키드스킨 직물소재 견사 편물	리본이나 깃털 프린팅
현대	용도에 맞는 다양한 길이의 형태의 장갑 유행 슬립온, 곤들룻, 암렝스 등	다양한 색상이 등장 가죽에 직접 프린트 여러 색의 자카드	저지소재 천연가죽 합성가죽 편물 등	단추, 버클, 스트라이프, 장식스티치, 자수, 트리밍, 스캐펄

IV.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장갑의 상징적 의미

현대 장갑은 손을 보호하는 목적 외에 기호로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장식품은 의복의 연장으로서 의복과 조화를 이루며 착용자를 더욱 돋보이게도 하지만 장식품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나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²³⁾ 본 장에서는 III장에서 분석했던 조형적 특성을 기본 틀로 장갑의 상징적 의미 분석을 위해 이에 장갑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패션디자인 및 미학관련 전문가 집단 10인을 선정하여 패션관련 잡지와 인터넷에서 1369점을 선정하여 분류하였다.

1. 장식성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복식의 개념이 입는다는 것에서 치장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²⁴⁾ 이는 복식에서 실용적 가치 이외에 상징적 가치 또는 미적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복식이 인간의 감정적 측면과 의사 전달적 측면을 표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치장한다는 개념으로의 변화는 표면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으로서 복식의 착용 동기가 되었던 장식적 특성이 강화되는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²⁵⁾ 이처럼 장식은 인류의 기원과 함께 시작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무한한 수단으로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복식의 중요한 장신구인 장갑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가 추구하는 미의식에 맞추어 발달하였다. 중세 이후 사회가 발달됨에 따라 장식성이 강조되어 오다가 근세에 이르러 장식적인 면이 더 강조되었다. 그러다 기능주의 사회가 시작된 근대가 되면서, 장갑의 장식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가, 1980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장식이 다시 중요하게 되었다. 의복의 기능성을 초월해 장식성이 중요해지고 과거의 모드를 현대에 가져와 새롭게 재창조되었다. 장갑은 장식을 통하여 지위나 신분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현대패션에서는 부와 신분 상징을 위한 장식보다는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변화되었다. 현대패션에서 장갑은 단순화된 의복에서 중요한 장식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형태, 색채, 재질, 디테일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다양하다. 장갑은 의상의 일부분이지만 그 자체로서도 하나의 조형으로서 조형미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 옷감과 옷의 디자인에 따라 장갑의 모양이나 색이 결정되지만, 독립적으로 디자인되면서 의상의 이미지를 결정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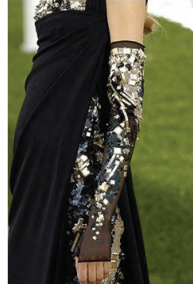
장갑에 비즈, 보석, 시킨 등 크리스탈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각도나 빛에 따라서 다양한 색채를 나타내며 화려한 장식미를 나타내기도 한다<그림 7>. 수공예 레이스 위에 비즈와 구슬장식으로 오프꾸뛰르의 화려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디자인을 선보였다<그림 8>. 또 다른 장식의 표현으로 대량 생산에 의한 기계적인 상품에 착용자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 자수를 사용하여 사치스럽고 고급스럽게 표현하였다<그림 9>. 이와 같이 우아함, 아름다움, 과시성 등의 장식적 속성이 장갑을 통해 표출되었다. 또한 오프꾸뛰르의 사치스러운 멋의 미학을 자수와 비즈 기법의 뛰어난 솜씨로 새로운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eroticism)이란 성애의 신을 나타내는 그리스어 에로스(eros)에 어원을 두고 있다. 에로티시즘에 관한 사전적 의미는 ‘성적인 만족을 위한 양식으로서 호색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육체적인 사랑을 묘사하고 그것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그림 7> 베르사체 1986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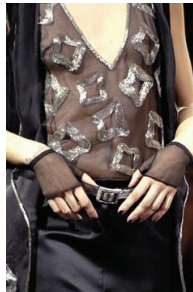
<그림 8> 샤넬 2007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9> 장폴고티에 2003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0> 장폴고티에 1992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1> 샤넬 2011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2> 도나카란 2009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라고 되어 있다.²⁶⁾ 이러한 의미에서 에로스는 육체적인 갈망인 동시에 보다 완전한 것을 지향하는 정신적인 갈망으로 발전하며, 이러한 갈망은 속성적으로 항상 만족과 불만족, 지향과 좌절, 생의 애착과 죽음에 대한 동경과 같은 이중성,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인 노출과 소극적인 은폐, 승화된 표현 행동과 카오스적 질서파괴행위 등과 같은 이중성으로 표현된다.²⁷⁾

신체의 일부를 은폐시켜 틈새를 통하여 ‘보고자 하는 욕구’를 유발시킴으로써 에로티시즘을 표현한 것으로 슬래쉬(slash), 슬릿 slit), 구멍 뚫기 등의 기법을 통하여 장갑의 틈새로 신체의 일부를 살짝 드러내어 에로티시즘을 느끼게 한다<그림 10>. 밀착의 형태는 광택이 나는 새틴이나 코팅소재, 신축성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성적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복식의 소재는 제 2의 피부로서 입을 사

람의 에로틱 표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각각의 다른 소재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에로틱하게 표현할 수 있다. 특히 가죽은 신체에 꼭 끼는 소재로 팔과 손의 선을 그대로 드러나게 재단되어 사람의 피부를 직접 연상하게 되므로 보다 에로틱하게 표현된다. 투시란 시각적인 인지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섹스어필을 감지하여 형태를 상상하도록 하여 에로티시즘을 느끼게 한다.²⁸⁾ 시스루 소재의 장갑은 암시적으로 신체 부위를 투시에 의해 감지한 후 성적 연상에 이르게 하고 이를 통해 성적 매력을 느끼게 한다<그림 11>. 존 칼 프르젤(John Carl Flugel, 1930)²⁹⁾에 의하면 어떤 의류품이 성적 기관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의복의 상징성이 성적이라 한다. 장갑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적 상징이 나타나고 있다. 털과 벨벳은 음모로 간주되어 털이 많이 장식된 장갑은



<그림 13> 프레디 로빈
1997년 (출처: 『Knitwear in
fashion』, 2002, p.21)



<그림 14> 까스텔바작
2004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5> 지방시
2009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6> 장폴고티에
1992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보편적으로 여성의 상징으로 고려된다.³⁰⁾ 모피는 따뜻함, 부드러움 등을 나타내며 음부를 상징하며 착용자로 하여금 흥분을 일으키기도 하여 페티시즘(fetishism)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그림 12>. 강렬한 색채의 가죽, 고무소재의 긴 장갑 등은 본래의 의미를 잃고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서 사용됨을 상징하여 성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페티시즘의 일면을 보여준다. 장갑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표현은 노출이나 밀착, 투시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거나 다양한 기법의 상징적 이미지로써 복합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3. 유희성

유희성이란 협의의 의미로 일상규칙의 위반, 이질적 요소의 도입, 외설, 하락, 강조, 변형, 모순, 부조화를 통해 보는 이에게 놀라움, 쾌감, 우월감을 갖게 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것을 뜻한다. 현대 예술에 있어 유희는 과거의 진지함은 우스꽝스럽게 희화되며 작가의 도덕적 윤리적 메시지가 흐려지게 되었지만, 대중의 입장에서 수용되기 쉬운 형태로 단순화되며 그 자체가 예술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장갑의 유희적 표현은 착장의 변화에 기인한 유희, 눈속임 기법에 따른 유희성, 그래피티에 의한 유희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상용품이나 장갑의

소재로 사용되지 않던 다른 소재를 사용하였을 때나 장갑이 착용되어질 것이라 여겨지는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착용되었을 때 발생된다. 장갑을 손이 아닌 엉뚱한 곳에 착용되면 웃음을 유발하며 기존 질서에 대한 공격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디자이너의 고의적인 실수로 착장에 있어서 오래된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움을 가하면서 재미와 멋으로 표현된다<그림 13>. 의상에서 눈속임 기법은 초현실주의에서 나타난 표현기법 중 하나이다. 1930년대 엘자 스키아파렐리의 의상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이 속임수는 악의성 없는 것으로 유머와 통한다. 2004년 장 샤를르 드 까스텔바작(Jean-Charles de Castelbajac)의 장갑으로 사람 손에 있는 뼈 모양을 장갑에 표현한 작품으로 눈속임 기법인 트롱프레이(trompe l'oeil)를 이용하여 익살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다<그림 14>. 그래피티(graffiti)를 사용하여 장갑에서 은유적이고 암시적인 메시지를 유머러스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희성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착용방식을 변형시키고 의복구성에 고의적인 오류를 범하게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켜 디자이너의 창조정신과 위트를 보여준다.

4. 신체확장성

현대 패션의 확대는 인체선과 전혀 무관한 예

측할 수 없던 부분에서, 일정한 형태가 없는 추상화, 비정형화, 기형화 특성과 확대 형태와 크기가 착장에 따라 변하는 가변화의 특성을 지닌다. 즉 과거의 거부와 새로움의 미학적인 강령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³¹⁾ 확대·과장된 복식은 새로운 환경적 공간이 강조되어 인간의 신체 이외의 에워싸고 있는 공간에 여러 가지 에너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성격의 확장된 인체를 가지게 한다.

장갑에서 나타나는 신체 확장형은 길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갑의 확대와 과장은 소매와 장갑을 한 피스로 함께 연장한 상방형의 길이에 의한 확장이 많다. 장갑이 소매를 대신한 것과 실용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필요이상으로 부피, 길이를 과장시킨 경우도 있다. 20세기초 인체표현의 전개과정에 있어 현대복식에서 보여 지는 확장성은 기존의 의복구성에 반발하여 나타난 것이 많고 현대 미술사조에 영향을 받아 기하학적인 형태 및 구조를 상징적인 이미지와 결합시킴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초현실주의 엘자 스키아파렐리의 경우에는 소매 없는 드레스에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 모양을 한 긴 장갑을 착용하여 기존의 장갑과 의상간의 구조를 파괴하였다. 장갑을 소매와 같은 형태로 디자인하여 확장시켜 인체를 연장시켜 기존의 의복 구성 원리를 고의로 바꿔 새로운 복식과 인체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15>. 하나의 목, 두 개의 팔, 하나의 몸통, 두 개의 다리라는 기존의 의상에서 장갑과 소매가 연결되고 다시 바지와 이어져 있는 비정상적인 연결로 신체의 각 부분들이 재구성되어 하나의 옷에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그림 16>. 이와 같이 신체 확장된 장갑은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인체의 객관적 재현 형태의 해부학적 특징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인체를 해석하고 자유로운 의장 원리를 창출하고 의상의 감추어진 내적 의미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V. 작품

1. 작품의 제작 의도 및 방법

인간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복식은 장식과 기능적인 디자인이 요구되는 예술의 한 부류로서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 또한 복식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의 활동범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려는 특징이 있으므로 장갑도 이러한 표현의식이 중심이 되어 그 디자인이 결정되어진다.

앞에서 살펴본 장갑의 이론적 배경과 조형적 특징 그리고 현대패션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인 장식성, 에로티시즘, 유희성, 확장성을 바탕으로 각각의 분류에 따른 작품제작을 하였다. 작품 I은 장식성을 응용한 디자인으로 바로크 시대의 곤틀릿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현하였으며, 작품 II는 은폐와 노출의 변증법을 통하여 보고자 하는 욕구와 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통해 에로티시즘을 나타내었다. 작품 III은 트롱프레이 기법을 사용하여 병어리장갑에 검정색 실로 손가락의 절개를 스티치로 표현한 유희성을 응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품 IV는 신체연장을 통한 확장성을 표현한 작품이다.

2. 작품 제시

1) 작품 I

- 상징적 의미: 장식성
- 구성: 곤틀릿(gauntlet)
- 소재: 실크 새틴(silk satin), 실크 타프타(silk taffeta)
- 색상: 라이트 블루, 골드
- 장식: 자수, 태슬, 테입

작품 I은 장식성을 응용한 디자인으로 바로크

시대의 곤틀릿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현하여 금색과 라이트 블루색상으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였으며 자수의 디자인은 심플하게 현대적으로 변형하였고 금색 실로 테두리에 수를 놓았으며 그 위에 비딩을 하여 화려한 장식미를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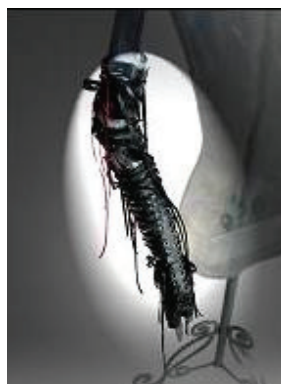


<그림 17> 작품 I 이미지

2) 작품 II

- 상징적 의미: 에로티시즘
- 구성: 하프 미트(half mitt)
- 소재: 가죽, 공단 테입
- 색상: 검정, 빨강
- 장식: 아일렛

작품 II는 페티시즘(fetishism)을 표현한 하프미트이다. 페티쉬의 가장 큰 특징인 타이트 레이싱(tight-lacing)을 이용하여 검정 가죽소재에 아일렛(eyelet)구멍을 연속적으로 뚫고, 가죽 끈으로 묶어 주었다. 끈과 끈의 틈새로 신체의 일부를 살짝 드러내어 에로티시즘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트임, 틈새, 신축성 있는 소재 등은 인체를 은폐와 노출의 변증법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구’와 ‘보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요소이다.



<그림 18> 작품 II 이미지

3) 작품 III

- 상징적 의미: 유희성
- 구성: 미튼(mitten)
- 소재: 모
- 색상: 연두색, 핑크, 마젠타
- 장식: 아플리케

눈속임 기법(trompe l'oeil)으로 유희성을 나타낸 작품이다. 장갑의 형태는 미튼인데 손가락에 사이 사이에 검정색실로 스티치를 넣어 손가락이 분리된 글러브처럼 보이게 하여 유머를 표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손처럼 가죽으로 된 손톱을 부착하여 착시로 인한 재치와 유머적 효과를 주었다.



<그림 19> 작품 III 이미지

4) 작품 IV

- 상징적 의미: 신체확장성
- 구성: 글러브(glove)
- 소재: 실크 벨벳
- 색상: 보라
- 장식: 서링, 인조손톱, 핫피스

장갑의 신체연장의 변화에 의한 소매부분과 손끝의 연장에 의한 길이 방향의 확장성을 응용한 작품이다. 의복과 장갑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깨까지 연결될 수 있는 소매와 장갑 끝에 부착된 손톱과 끈을 통해 의상과 장갑의 연장에 의한 트레인화가 디자인 포인트이다.



<그림 20> 작품 IV 이미지

VI. 결론

본 연구는 장갑의 조형성과 상징적 의미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장갑의 역사와 분류를 고찰하고 조형성을 분석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내적 의미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1980년 이후의 현대패션에 나타난 장갑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고 장갑 디자인 연구 개발에 기초 자료가 되고자 한다.

첫째, 장갑은 고대로 갈수록 기능적인 역할이

요구되었으나 중세부터는 조형적인 면에 비중을 두어 각 시대에 따라 인간의 미적 욕구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장갑은 복식 전체의 조화와 통일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장갑의 조형성의 주요 특징은 형태, 소재, 색채, 디테일의 4가지로 요약된다. 형태는 고대에서는 미튼(mitten)과 유사한 형태의 긴 주머니 모양의 장갑을 착용하였다. 중세 이후에는 곤틀릿이 유행하다 근대로 갈수록 점차 길이가 길어져 암랭스(arm length)로 변화하였으며, 현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장갑이 나타났다. 색은 19세기 말 합성염료가 등장하기 전에는 주로 가죽 그대로의 원래의 색을 사용하였으며 20세기에는 다양한 색상의 장갑을 착용하였다. 소재는 십자군 전쟁이후 가죽 외에도 실크, 벨벳, 면 등이 사용되었고 20세기에는 레이온, 나일론, 합성가죽도 이용되었다. 장식은 자수, 보석, 리본, 레이스, 진주, 스팅글, 술 등이 있으며 중세 이후부터 장식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장식에 대한 인간의 기본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장갑이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셋째, 1980년 이후 패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으로 어느 하나의 경향보다는 여러 이미지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장갑의 상징적 의미는 장식성, 에로티시즘, 유희성, 확장성으로 분류되었다. 장식성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오픈꾸뛰르 적인 비즈, 자수 장식과 핸드 프린팅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에로티시즘 표현은 노출이나 밀착, 투시적인 방법으로 강하게 나타나거나 다양한 기법의 상징적 이미지로써 복합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장갑의 유희적 표현은 착장의 변화에 기인한 유희, 눈속임 기법에 따른 유희성, 그래피티에 의한 유희의 양상을 선보이고 있다. 신체 확장성은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인체의 객관적 재현 형태

의 해부학적 특징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인체를 해석하고 자유로운 의장 원리를 창출하고 의상의 감추어진 내적 의미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장갑의 조형성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를 분류하여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확대된 시각을 제시하며 장갑 디자인 개발이 가능함을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장갑만을 주제로 한 참고 자료가 미비하여 각 서양복식에 관련된 문헌과 관련 논문, 박물관 도록 등에 언급된 내용과 사진자료만을 다룬 점과 실물 관찰을 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장갑의 고찰에 대한 지역적 범위를 넓혀서 서양 복식에 나타난 장갑과 비교한 후속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권명숙, 최인순, 정기수, 양민재 (2005). 손형태의 특징 및 장갑의 치수 설정에 관한 연구, 복식, 55(6), p.24-37.
- 2) 최혜선, 김은경 (2005). 국내 장갑 제조업체의 실태조사 및 치수 체계에 관한 연구, 복식, 55(2), p.116-128.
- 3) 김소영, 이예진, 박혜준 (2008). 3차원 데이터를 활용한 장갑형 햅틱용 기본 패턴 개발, 한국의류학회지, 32(8), p.77-90.
- 4) 오지은 (2001). 17,18세기 장갑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7.
- 5) 김월순, 김은희, 이연영 (2004). 토탈 패션 코디네이션, 서울: 예림, p.154.
- 6) 오지은. 앞의 책, p.19.
- 7) 정홍숙 (2007). 서양복식사(3), 서울: 교문사, p.174.
- 8) 오지은. 앞의 책, p.20.
- 9) Anderson, B. J. and Madge, G. (1997). 세계패션사, 윤길순 옮김 (1997). 서울: 자작아카데미, p.210.
- 10) 오지은. 앞의 책, p.26.
- 11) 장갑의 길이는 버튼(button)으로 나타내는데, 엄지손가락의 이음새부분부터 장갑부리 끝까지의 길이를 잴 것을 말한다. 1버튼은 1프렌치 인치로 8~10버튼은 8~10프렌치 인치를 말한다.
- 12) 김영인 (2001). 현대패션과 액세서리 디자인, 서울: 교문사, p.44.
- 13) 금기숙, 김민자, 김영인, 김윤희, 박명희, 박민여, 배천범, 신혜순, 유혜영, 최해주 (2002). 현대패션 1900-2000, 서울: 교문사, p.124.
- 14) 브리태니커백과사전 (1994). 서울: 한국브리태니커, p.590.
- 15) Tranquillo, M. D. (1984). Style of Fashion, N.Y: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p.69.
- 16) 오지은. 앞의 책, p.4.
- 17) Lester, K. M. and Oerke, B. V. (1954). Accessories of Dress, Illinois: Chas.A.Bennett co, p.353.
- 18) Payne, B. (1965). History of Costume, N.Y: Harper & Row publishers, p.188.
- 19) 이정옥, 최영옥, 최경순 (1996).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p.274.
- 20) 오지은. 앞의 책, p.36.
- 21) 브리태니커백과사전 (1994). 서울: 한국브리태니커, p.628.
- 22) 오지은. 앞의 책, p.36.
- 23) 최현숙 (2000).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0.
- 24) 백성희 (2003). 현대 복고패션에 표현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고찰,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 25) 박선훈 (2000).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 26) 전해경 (2002). 현대패션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표현 양식에 관한 고찰,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 27) 전해경 (1993). 복식의 에로티즘 양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8.
- 28) 민미홍 (1989). 에로티시즘 표현에 관한 의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7.
- 29) Valerie, S. (1985). Fashion & Erotic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139.
- 30) Evan, C. and Thorton, M. (1930). Women and Fashion, London: Wipifo, p.139.
- 31) 성광숙 (2002). 복식 확대 현상의 내적의미에 관한 연구, 동명정보대학교 디자인연구소, 1(-), p.52.

Design Development Based on the Symbolic Meaning of Gloves

Lee, Jee Sun⁺ · Choy, Hyon Sook

Concurrent Professor, Major in Fashion Stylist, Kookje Colleg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Abstract

With diversification and individualization of modern people's lifestyles,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that glov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human body, not just as an accessory for fashion coordination. Gloves are no longer a subsidiary item of fashion but an important item in modern times emphasizing the meaning of total fashion. Gloves are a way to express aesthetic consciousness of humans and simultaneously, their position in fashion trends becomes more secure with the growing spotlight.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symbolic meaning that people want to express through various kinds of gloves by looking into the historical progress of western gloves and present basic data for studies on glove design by making actual pieces based on the symbolic meanings. The study methods include literary research and glove production. As a result of theoretical research, the symbolic meanings were divided into decoration, eroticism, enjoyment and body extension. Based on each symbolic meaning examined, the researcher developed creative designs of gloves and produced four works.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presented a wider view of gloves beyond a perspective focusing on clothes in terms of clothing studies and found the need of development of professional glove design through theory and production.

Key words: gloves, symbolic meanings, formative characteristics, total fashion